

‘빛’ 때문에 못살겠다는 ‘빛고을’

광주 수면 방해·농작물 저성장 등 3년간 빛공해 민원 773건

남구 294건 최다…市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효과 주목

광고간판 등 인공 조명으로부터 발생하
는 과도한 빛이 최근 심각한 환경 분쟁 요
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지역의 빛 방사 수준이 허용기준을
68%나 초과하고 있는데다, 상업지역도
허용기준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크게 증
가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1월1일부터 시내 전역(501.18㎢)을 4
종으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
정한 만큼 빛공해 관련 분쟁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광주시가 최근 발간한 ‘2016년 환경백
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
년) 광주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총
77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469건으
로 가장 많았고, 농작물 피해도 304건이었
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268건), 광산(146건), 동구
(33건), 서구(32건) 순이었다.

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농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작물 피해 건수가 18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구의 농작물 피
해 민원은 2013년 40건에서 2014년 52건,
2015년 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의 빛공해 민원은 2013년 164건
에서 2014년 186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15년들어 423건으로 급증했다. 빛공해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는 지
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구별 대
표지역 75개 지점과 야간경관조명 15개
지점 등 총 90개 지점에 대해 빛공해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결과 빛 방사 허용기
준 초과지점이 48개소(53% 초과)나 됐다.

자치구별로는 최근 신도심이 조성돼 인
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산구가 56%의 초

과율을 보였고, 이어 북구 55%, 동구와 서
구 각 53%, 남구 50%순이었다. 용도지역
별로는 주거지역이 68%를 초과해 시민들
이 느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상업지역도 40%를 초과해 광고물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조명기구별로
는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의 초과율이 73%
로 광고조명(57%초과)에 비해 상당히 높
게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처럼 빛공해 민원이 늘어남
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빛
공해 방지 중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
혔다. 빛공해 50% 저감이 목표인 이 계
획은 빛공해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
업 등이 포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48
달출 00:40
달짐 12:18

신난다 ‘눈’

눈이 온 뒤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
겠다.

◇지역별 날씨(℃)

광 주	눈온뒤겜 -1/1	보 성	눈온뒤겜 -3/2
목 포	눈온뒤겜 0/2	순 천	눈온뒤겜 -1/3
여 수	눈온뒤겜 0/3	영 광	눈온뒤겜 -2/0
나 주	눈온뒤겜 -2/2	진 도	눈온뒤겜 2/3
완 도	눈온뒤겜 1/3	전 주	눈온뒤겜 -1/1
구 레	눈온뒤겜 -3/0	군 산	눈온뒤겜 -2/1
강 진	눈온뒤겜 -1/2	남 원	눈온뒤겜 -3/2
해 남	눈온뒤겜 -1/2	축 산도	눈온뒤겜 0/2
장 성	눈온뒤겜 -2/1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면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3.0~5.0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	북서~북 2.0~3.0	
서해	면바다(동)	서~북서 2.0~4.0	북서~북 2.0~4.0	
남부	면바다(서)	서~북서 2.0~4.0	북서~북 3.0~5.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24 12:42	07:33 19:42
여수	08:11 20:39	02:13 14:18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3/3	-2/0	-4/0	-6/0	-6/5	-4/8	-1/6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

대법 ‘분묘기지권’ 인정

묘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
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소유자인 A씨가 이 임야에 분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묘지에 대해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원심판결을 확
정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
다며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른바 ‘시효취
득’ 규정이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
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
래 세월 동안 지속돼 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부는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
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 기간을 기본 15년
으로 규정하고 3년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
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장사법의 시행으로
더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됐
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
는 취지다.

/연합뉴스



“참정권 보장해 주세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
대회’에 참석한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회원들이 선거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제공>

전국 교육감협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라”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주도 서울대회…청소년 등 75명 원정

광주지역 청소년 등 시민 75명이 ‘18세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
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주도로 서울 대
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소년도 나라의 주
인’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18
세 투표’ 구호를 외쳤다.

‘18세 선거권 광주연대’ 이운기(45)집행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곳곳에
서 18세 참정권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
는 만큼 지금이 선거연령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는 교육정책 등
의 결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 이재현(19)군
은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무
관심한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정환협(20)씨는 “20살로 투표권
이 있지만 18세 후배들도 정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박근
해 정권 같은 무능한 정권이 태어나지 않
도록 18세 청소년들이 두발 빋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
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는 전국 각
지에서 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결
의문을 낭독하는 등 논쟁을 끝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선거권 연
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
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
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
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
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
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서울·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
교육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다.

/김지을·김현영기자 dok2000@

광주·전남 ‘화이트 주말’…눈 최대 8cm

20일 오전 광주·전남 전역에 눈이 내
리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
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
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
주·전남 예상 적설량은 1~8cm 내릴 예

정이다.

눈은 이날 오후에 그쳤다가 21일 밤부
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평
년보다 낮아져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출근길 교통
과 보행자 안전,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통학버스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가능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
했다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경
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강사 등 통
학버스 관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중상
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에 어
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교육교직원
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

원,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
을 마친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어린이
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시교
육청은 이후 해당 유치원을 폐원 조치했
지만, 법원이 유치원의 폐쇄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여수에서는 통학버
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이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가 자주 일어나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
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관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골프]다낭 골프 54홀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쪽번호 제동다 2003-1호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방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경비보험(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